

## 소시민의 풍속도 그린 만화에세이

《기억상실》  
펴낸 만화가 주원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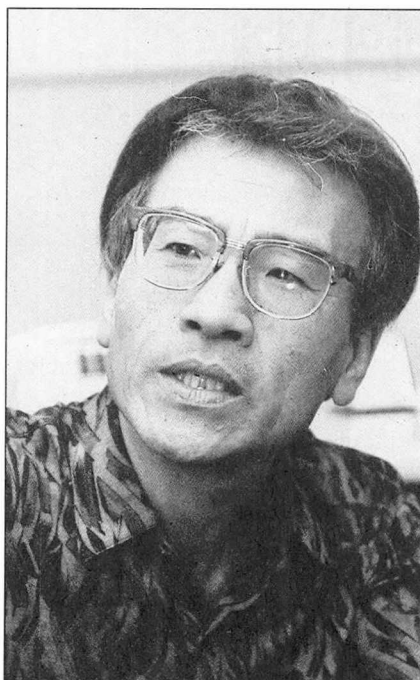
이들이 꾸는 꿈의 빛깔이 곧 우리 사회의 꿈을 대변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소시민들 삶의 시시콜콜한 사정을 그린 풍속도이지만 속을 파들어가보면 우리 사회 핵심 이슈를 되짚어보면서 소시민들이 ‘상실’하고 있었던 ‘기억’ 혹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상기하고, 문제의식을 지니자는 그의 메시지가 바탕이 되고 있다. 소시민화 경향과 페미니즘의 문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등이 그가 되짚어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애써 ‘기억’시키고 싶은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들이다.

“강경대가 죽었다/박승희가 죽었다/이철수가 죽었다.../나, 얼굴을 두손으로 문질러 본다/살아 있는가” 청년기의 빛나던 문제의식과 역사의식을 망각한 채 개인의 삶의 안위에 골몰하는 많은 소시민들에게 그가 던지는 질문이다.

“예술가야말로 자신이 사는 시대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만화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예술이다”고 단언하는 그는 일본만화의 개방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요즈음, 일본으로 역수출할 만한 만화를 구상중에 있다.

—박남정 기자



## 예술 속에 숨어 있는 상징의 세계

《문학상징사전》  
펴낸 이승훈 교수

따라다녔습니다. 실로트가 현대 예술이 상징주의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처럼 문학작품 속에 숨어 있는 상징을 해석하는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 역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문학적 경륜을 통해 묶여나온 《문학상징사전》은 국내 초유라는 의미 외에도 편저자의 일관된 감각을 통해 문명과 사물의 의미망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겨울 자신의 9번째 개인시집을 출간하는 이교수는 최근 우리의 현대시사 중 모더니즘에 관계된 것들을 모아 집대성한 《모더니즘시사》 집필을 준비하고 있다.

—허연 기자

“문학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요소는 회화, 음악, 건축 등 심리학적 해석을 요구하는 모든 예술분야를 비롯 철학, 종교, 민속학 등 인간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존재합니다. 인간은 상징의 세계에서 상징을 조작하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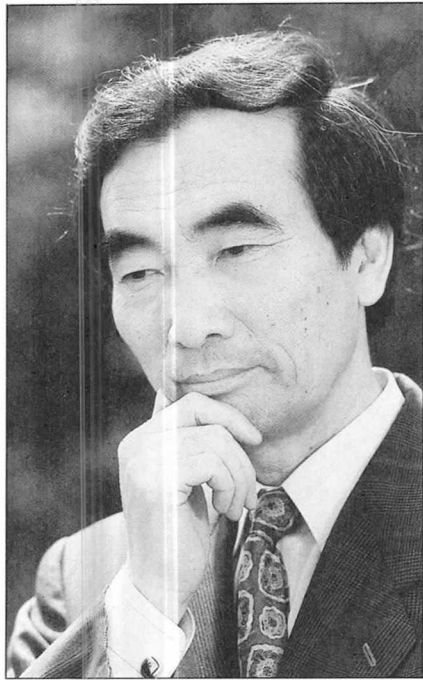
최근 《문학상징사전》(고려원)을 펴낸 시인 이승훈 교수(53, 한양대 국문과)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 발전의 뿌리가 바로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상징사전은 편저이기는 하지만 원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완벽하게 재정돈한 점이 돋보인다. 원전의 항목들을 우리 문학작품을 예문으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널리 소개되지 않은 스페인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실로트가 쓴 《상징사전》의 영역본(세이지 옮김, 1962)을 우연한 기회에 접할 수 있었고 그 책을 틈틈이 살펴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상징사전을 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전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문이 없었던 그 책에서 주요 항목들을 뽑아 600여개의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작업에 매달려 꼬박 2년여가 걸린 이 상징사전에는 객관적 현실보다는 주관적 정서를 강조하는 예술의 특성을 감싸안고 있는 400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개미, 기둥, 지팡이 등 구체적인 사물들에서부터 결혼, 목욕, 축제 등 삶의 형식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실로트의 원전은 그동안 시를 쓰고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고, 시를 중심으로 평론활동도 하는 내 곁에 언제나 친구처럼





## 아리랑 같은 김치의 맛과 멋

《한국인의 생명, 김치》  
펴낸 최홍식 교수

최교수의 '김치 예찬론'은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교수는 얼마 전부터 우리의 김치가 '기무치'라는 이름의 일본 상표를 달고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분개한다. 김치의 학명 또한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것이라는 표기의 'Kimuchi : Japaness Style Spicy Pickle'이다. 김치가 세계 무대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 최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학술지 《크리티컬 리뷰》지에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논문을 게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김치를 지키지 않으면 종주국으로서의 체면은 물론이고 영영 일본에게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이 김치를 연구하게 만들었다는 최교수의 옹골진 김치 연구는 밥상에 오르는 김치의 존재를 새롭게 만든다.

—배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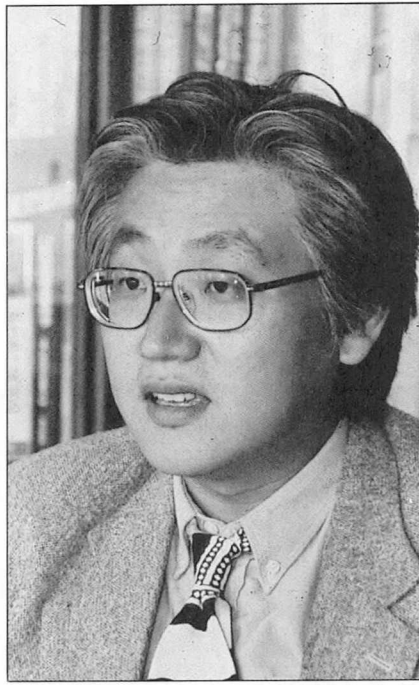
우리에겐 김치가 있다. 한두끼 정도는 김치가 빠진 식사를 하다가도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느새 김치가 그리워진다.

전통음식에 관심을 갖고서 김치와 밥, 장(醬)류를 연구하고 있는 최홍식교수(45, 부산대 식품영양학과)가 최근 김치연구만을 모아 《한국인의 생명, 김치》(밀알)를 펴냈다. 30년간의 김치 연구를 집대성한 이 책을 통해 그는 “우리 마음 속에 김치는 겨레의 혼 ‘아리랑’과 같은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밥·국·김치로 구성되는 상차림은 선조 때부터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김치는 삼국시대부터 ‘김치무리’로 시작돼 조선후기에 완성된 우리 선조들의 걸작품입니다. 김치 속에는 마늘·파·생강·청각·갯·젓갈과 해산물까지 들어 있어서 영양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교수는 김치의 성분을 오래도록 연구한 결과, “담근 후 삭고 익어가는 발효과정을 거친 김치 속에 ‘생명물질’이 듬뿍 들어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생명물질은 세가지 군으로 나뉜다.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유에 많이 들어 있는 젖산균(유산균)외에 영양성분과 기능성 성분이다.

“영양성분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 A와 C가 많은 것이 주목됩니다. 이 두가지는 소위 항산화·항노화·항암성분으로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양념에서 배어나는 단백질, 지방, 칼슘 등이 골고루 들어 있어서 김치 하나만으로도 마치 영양소 축제를 하는 듯합니다.”



## 만화처럼 읽히는 영어

《영어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펴낸 변영우씨

변영우씨는, 현재 국내에 관용구를 정리해 놓은 책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소수 출간되어 있는 책들은 ABC순으로 정리해놓은 사전식 구성의 책들뿐인데, 그런 식의 책들은 관용구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중압감을 더해줄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라는 매체는 흡인력이 아주 강합니다. 철학이나 역사처럼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 내용도 만화를 이용하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있죠.”

영어 강사를 그만두고 만화가로 변신하여 5년여간 활동해온 변영우씨는 영어와 만화가 서로 만나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확신에 가까운 자신감을 보인다.

두번째권과 세번째권은 다음달 중순과 내년 1월경에 연이어 출간될 예정이다.

—한동림 기자

뉴욕의 트럭 운전자, 일간지(동아일보) 미주 외신기자, 국내 유명 외국어학원(과교다)의 강사, 만화가 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직업편력을 가지고 있는 변영우(37)씨가 독특한 영어 학습서를 펴냈다.

자연스럽게 영어의 세계와 그 문화권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머러스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으며, 흥미를 끄는 사진과 만화도 함께 실고 있다.

“자기가 아는 이야기만 들리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는 화제 속에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변영우씨는 영어 그 자체를 아는 것 못지 않게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흔히 청취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자니 카슨 쇼’를 예로 들면서, 그 쇼에서 쓰이는 어휘나 표현이 결코 난해한 것들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청취가 어려운 까닭은 어휘나 표현 때문이 아니라, 그 쇼가 우리네가 잘 알지 못하는 미국 연예계 뒷이야기를 주로 화제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곧장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구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관용구에 서툴게 되면, 본토 사람들도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만 잔뜩 늘어놓는 ‘이상한 영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관용구를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어 표현 능력이 판가름나게 마련이라는

